

## News

### 美 연준, 금리 0.25%p 인상…연내 6회 추가 인상 시사

서울경제

미국 연준, 기준금리 0.25%p 인상하며 3년 3개월 만에 제로금리 시대 종료… 투표권 행사한 위원 9명 중 불러드 총재 제외 8명이 찬성

불러드 총재는 0.5%p 인상 주장… 이날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 수준 1.9%로 예상…베이비스텝일 경우 6번 모두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셈

### 은행 핀테크 인수길 열린다…尹, 디지털 혁신 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 완료 후 금융권 규제 이슈 들여다 볼 예정… 이 중 은행권의 '디지털 규제' 완화 요구도 포함 예정

현재 금산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 지분 20% 이상 확보하려면 금융위 승인 받아야…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 추진할 목표로는 내세우지 못할 것 예상

### KB금융, 지주 출범 첫 1분기 배당 시사…주주명부 폐쇄

연합인포맥스

KB금융, 16일 분기배당 위한 주주명부 폐쇄 결정 공시… 지주 출범 첫 1분기 배당 가능성 커져…주주명부폐쇄 기준일은 이달 31일

사측은 1분기 배당 실시 여부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과 재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이사회에게 결정할 예정이라 언급… 분기배당 실시하면 두 번째 분기배당 해당

### 하나·우리은행, 다음달 은행권 첫 공동 점포 문 연다

연합뉴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4월 중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공동 점포 내기로… 은행권 첫 점포 공유 사례

하나은행 수지신봉지점 작년 9월 13일 문 닫은데 이어 우리은행 지점도 12월 30일에 폐쇄… 비대면 금융 확산에 따른 대면 은행 지점 감소로 불편을 위한 고객 위한 것

### 금융지주, 보험사 인수 효과 '톡톡'…속 타는 우리금융

CEO스코어데일리

금융그룹 내 보험 계열사들의 존재감 커져… 새로 합류한 보험사들은 그룹 비은행 포트폴리오 미흡한 점 보완… 기존 보험사들도 실적 개선하며 효자 노릇 톡톡

금융지주 순익에서 비은행 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40%대로 높아져… 다만 유일하게 보험계열사가 없는 우리은행은 비은행 부문 기여도 17.2%로 낮아…

### 자동차 보험 절반이 '다이렉트' 가입

조선일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전체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절반 차지… 3분기까지 자동차보험 보험료 수입 15조 2,000억원 가운데 45.4%인 약 6조 9,000억원이 다이렉트 방식

설계사 방법 보다 10~15% 가량 보험료 저렴하기 때문에 가입 건수는 절반 웃도는 것으로 추정…이에 보험 설계사들의 중요성 감소 중

### 증권사 주총 시작…장수 CEO·女 사외이사 등장 '주목'

서울파이낸스

이번주부터 증권사 정기 주주총회… 불확실성 상황에서 변화보단 안정을 염두에 둔 인사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 여성 사외이사 선임도 주주총회 주요 안건

대부분의 CEO는 재임기간 높은 실적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거취가 긍정적… 실적 외에 사모펀드 사고 등 위기 극복 역량도 평가 요소

### 거래소 '스톡옵션 멱튀 제한'…상장 규정 개정안 18일 시행

데일리안

한국거래소,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18일부터 시행 예정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 신규상장기업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 추가,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 등 주요 내용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